

Gideon: God's Glory in Weakness 기드온: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사사기 7)

A Problem with Weakness

We continue Judges with the second of our 3-part mini-series on Gideon...In the last chapter we saw Gideon so painfully unsure of himself as to test the Lord repeatedly asking for signs. The Lord's patience gave Gideon the signs he sought...to help move him to be assured by grace — to prepare him this week to lead the battle against the Midianites.

The theme is God's glory His strength in victory — magnified by human weakness
A problem we all have is that the world says ultimate meaning & purpose is found in being a somebody ... some area of knowledge or ability to set us apart from others.

One of the most prominent theologians of the 20th C, J.I. Packer died just 5 days short of his 94th birthday in 2020....in his 2013 book *Weakness is the Way*, Packer reflected on his own weakness from advancing years: “God does not allow us to stay with the idea that we are strong. O, we may have that idea. But the Lord is going to disabuse us of it one way or another and it will be good for us and give glory to Him when he does so.”

In this passage, God wants us to renounce our tendency to boast in ourselves that His strength & His glory would be magnified in our weakness.

As we see His interaction with Gideon to bring about victory, Judges chapter 7 particularly teaches us that God's glory triumphs in our weakness – as we turn from the quest for our own honour that God alone would receive it.

연약함의 문제.

기드온에 관한 3부작 설교 시리즈 중,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기드온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과 그런 이유로 주님께 계속해서 증표를 요구함을 보았습니다. 이런 요구에 주님은 인내 가운데 증표를 보여 주셨고, 은혜 안에서 확신을 주사,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남이, 오늘 구절의 큰 주제임을 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보게 되는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삶의 목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출 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20 세기 신학자 중 한 명인 J.I. Packer 는 2020년 94 세 생일을 불과 5 일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2013년에 쓴 책, “*Weakness is the Way*”라는 책에서, 그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연약해지는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으사,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함을 버림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7 장을 통해 특별히 나타나는 주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예를 추구하는 일에서 돌아서며,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To what degree are my passions aroused for God's reputation compared to my own? One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other. The Lord's word to us this morning is to challenge our tendency to want our own honour that we would strive all the more to make much of Christ while dying to our own pride.

Last week we saw the gracious way the Lord dealt with Gideon in calling him in his hesitancy naming him as He saw him by grace — a mighty warrior. This week we resume just after the Lord's kind reassurance of victory even after Gideon tested Him with the fleece.

The Lord's Necessity of Weakness (1-8)

V1 'Then Jerubbaal (that is, Gideon) and all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rose early and encamped beside the spring of Harod. And the camp of Midian was north of them, by the hill of Moreh, in the valley. The Lord said to Gideon, "The people with you are too many for me to give the Midianites into their hand, lest Israel boast over me, saying, 'My own hand has saved me.' Now therefore proclaim in the ears of the people, saying, 'Whoever is fearful and trembling, let him return home and hurry away from Mount Gilead.'" Then 22,000 of the people returned, and 10,000 remained.'

As the battle lines are drawn....V2 is the key that drives the whole passage 'lest Israel boast over me, saying, 'My own hand has saved me'....so the Lord sets about depleting the number of troops.

Deuteronomy 20 the Lord makes allowance among other reasons, for anyone too frightened in battle to return home....to avoid the spread of low morale from fear among the army..... so of the 32k.....22k frightened men returned.

하나님의 영예를 추구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열정을 우리의 영예를 구하는 열정과 비교 할 때, 하나는 다른 하나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영예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사, 우리 교만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도록 도전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기드온의 망설임 가운데서도 그를 은혜의 눈으로 보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번 주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연약함의 필요성 (1~8 절)

1~3 절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레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내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새번역)

전쟁의 준비 가운데 2 절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내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군대의 숫자를 줄이기 시작하십니다.

신명기 20 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다른 여러 이유와 함께, 두려움에 있는 군사들을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십니다...이는 두려움이 군대 안에 퍼져, 군사들의 사기가 낮아짐을 막기 위함이었습시다. 그래서 32,000 군사 중 22,000 명이 돌아갔습시다.

The Lord tells Gideon 10k is still too many.....so He says to take the men down to the water for a test to whittle the number down further. Those who lapped cf. those who knelt to drink. The 9700 who knelt went home. The only significance in the 'lappers' is that their minority method was the mere means for the Lord to thin out the ranks. In the next chapter, we discover that there are 135k enemy soldiers...That's 450:1!

Weakness was God's necessity for Gideon...it remains that way for us today. How often we depend on ourselves & forget how dependent we are on the Lord. We don't like to think of weakness as providence...yet in the Lord's plan – that's exactly what it is.

Have you found yourself struggling to accept the decline that the Lord has allowed to happen through disease or advancing years? Would that we might see that such trials are His strange providences? "Poverty and affliction take away the fuel that feeds pride." —Richard Sibbes

Hardship brings unique opportunities to strip away all that gets in the way of God's glory. God wants us in our weakness – not in the pride that comes from thinking more highly of ourselves than we ought...When we surrender we discover that there's no end to His grace of encouragement

The Lord's Encouragement in Weakness (9-18)

V9 'That same night the Lord said to him, "Arise, go down against the camp, for I have given it into your hand. But if you are afraid to go down, go down to the camp with Purah your servant. And you shall hear what they say, and afterward your hands shall be strengthened to go down against the camp." Then he went down with Purah his servant to the outposts of the armed men who were in the camp.'

주님께서는 여전히 10,000 명의 군사도 많다 하십니다...그래서 그 숫자를 더 줄이기 위해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 시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은 마신 자들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9,700 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300 명의 군사만 남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보듯이 적군의 숫자는 135,000 명이라 말씀할 때, 이는 450:1 의 싸움이었습니다!

나약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필요로 하신 것이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에,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기 싫어합니다...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연약함의 필요성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노화나 질병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육적 쇠락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몸부림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시련이 하나님 섭리의 일부분임을 아셨나요? **Richard Sibbes** 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난과 고통은 교만을 부추기는 연료를 빼앗아 간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함 가운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원하십니다...우리가 이런 주님의 섭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분의 끝없는 격려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위로 (9~18 절)

9~11 절 "그 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There's a gentle irony in the Lord's conversation with Gideon when He says, 'if you are afraid to attack' The Lord knows His servant.... though the last chapter showed Gideon to be afraid & apprehensive, he hasn't turned back from the Mt. At the same time, the Lord knows that Gideon needs further assurance for courage....

He must have been wondering how the Lord was going to achieve what was humanly speaking, impossible.

After telling them about the relative ease of a camel going through the eye of a needle, compared to a rich man entering the kingdom....Jesus disciples said to Him, 'who can be save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The Lord still meets us in our weaknesses...gently...lovingly...patiently.

He leads us to do hard things in His goodness to bring us to the end of ourselves

He magnifies His glory particularly when we're afraid or aware of our inadequacy & trust Him all the more.

Gideon obeys & goes to the camp's outpost....With the enemy being like a plague of locusts in number.

v13, 'When Gideon came, behold, a man was telling a dream to his comrade. And he said, "Behold, I dreamed a dream, and behold, a cake of barley bread tumbled into the camp of Midian and came to the tent and struck it so that it fell and turned it upside down, so that the tent lay flat." And his comrade answered, "This is no other than the sword of Gideon the son of Joash, a man of Israel; God has given into his hand Midian and all the camp."

As soon as Gideon heard the telling of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he worshiped. And he returned and said, "Arise, for the Lord has given the host of Midian into your hand."

기드온을 향한 주님의 대화에서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이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부드러운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비록 지난 장에서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산에서 돌아서지 않았습시다. 동시에, 주님은 기드온이 용기를 얻기 위해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왜냐하면 그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실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라고 묻고, 이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의 온유함과, 사랑과 인내 가운데 우리를 만나십니다....주님은 우리를 그의 선하심 안에서 어려운 일을 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없애십니다. 특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 그를 더욱 의지할 때, 그의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이 있는 진영으로 갑니다.

13~15 절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하고 외쳤다.”

The Lord in His grace gave Gideon yet another sign...a dream of an enemy & its interpretation. In response.....He worshiped & strengthened by the Lord he was ready to go into battle for the Lord. May it encourage us knowing that the Lord doesn't stop encouraging us in Christ.....to bring us to joyful surrender — heartfelt worship.....emboldened service

The Lord's Strength in Weakness (19-25)

v19, 'So Gideon and the hundred men who were with him came to the outskirts of the camp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watch, when they had just set the watch. And they blew the trumpets and smashed the jars that were in their hands. Then the three companies blew the trumpets and broke the jars. They held in their left hands the torches, and in their right hands the trumpets to blow. And they cried out, "A sword for the Lord and for Gideon!"'

We aren't told that the Lord advised Gideon on his method of victory. It seems like He let Gideon come up with the plan himself. It fits with him being clever enough as to hide his wheat threshing activities from the Midianites in the wine press belonging to his father, Joash.

The 300 troops would have had enough trumpets, jars & torches from the provisions kept from the 9700 men who drank on their knees. One thing it does is maximise the glory of God – it will forever be a testimony that Gideon defeated God's enemies without so much as a sword – from start to finish it would be the Lord's victory.

The 300 troops add the word 'sword' to Gideon's original. Which is a prophetic irony – because Gideon had no sword – the only swords the Lord would use would be the swords of the hordes of enemy soldiers against themselves...God gave the victory. V21 'While each man held his position around the camp, all the Midianites ran, crying out as they fled. When the 300 trumpets sounded, the Lord caused the men throughout the camp to turn on each other with their swords. The army fled ...'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기드온에게 꿈과 해몽으로 또 다른 증표를 보이십니다. 이런 증표를 통해 기드온은 주님을 경배하며, 힘을 얻어 싸울 준비를 마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또한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사, 우리가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그를 경배하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 (19~25 절)

19~20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백 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향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구체적인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기드온 스스로 전략을 짜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소유한 포도주 틀에 숨어 밀 타작한 모습과 같이 영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9700 명의 군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겨놓은 수급품은 300 명의 군사에게 남겨졌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충분한 나팔, 향아리 그리고 횃불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사건으로, 이는 기드온이 칼 없이도 하나님의 원수를 무찌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끄신 승리임을 더욱 나타냅니다.

20 절에서 군사들이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아이러니 한 것은, 기드온에게는 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용된 유일한 칼은, 적군이 서로 죽일 때 사용하는 적군의 칼 뿐이었습니다...21~22 절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뱃시다와 또 담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The victory under Gideon has a great parallel with Moses in Exodus 14 with the Red Sea in front & the Egyptian army behind...Moses said to the people, ‘Do not be afraid. Stand firm and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will bring you today. The Egyptians you see today you will never see again.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Gideon parallels Moses...they both protested their inadequacy...they both received assurance from the Lord in the face of an overwhelming military. The Lord triumphed in their weakness for stunning victories...300 years earlier when Israel was up against Pharaoh’s chariots on the shore of the Red Sea...& now for Gideon with an enemy of swarming insect proportion — both Moses & Gideon were only ultimately able to triumph in utter surrender to the Lord.

Without the Lord’s sovereign intervention to confuse the enemy & for each to turn his sword against the another, 300 weaponless fighters were no match.

For us? Ephesians 6:12,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cosmic powers over this present darknes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places.” That enemy is even more formidable & the consequences of defeat are eternal...1 Cor 15:57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His life....death.....resurrection has overcome all that once stood against us. In ourselves we are weak — powerless — God knows — God wants us to know. It’s the necessity of weaknes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Phil 4:13

기드온이 누린 승리는 모세가 출애굽기 14 장에서 홍해와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의 상황 가운데 누린 승리와 평행을 이룹니다...모세는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기드온 둘 다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호소하였고, 이 둘다 압도하는 군대 앞에서 주님의 확신을 받았다는 사실에 모세와 기드온은 평행을 이룹니다.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모세와 기드온이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사, 이 적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도록 하지 않았다면, 300 명의 군사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울은 에베소서 6:12 다음과 같이 말씀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이 말씀의 배경에서, 우리의 적은 더욱 강력하고, 이런 적으로부터 패배함의 결과는 영원함을 보게 됩니다...그러나 고전 15:57 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약하며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약함의 필요성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빌립보서 4:13 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Grace: God's Glory in Weakness

MLJones:“ It is grace at the beginning, and grace at the end. So that when you and I come to lie upon our death beds, the one thing that should comfort and help and strengthen us there is the thing that helped us in the beginning. Not what we have been, not what we have done, but the Grace of God in Jesus Christ our Lord. The Christian life starts with grace, it must continue with grace, it ends with grace. Grace wondrous grace.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which was with me.”

1 Cor 1:28 ‘God chose the lowly things of this world and the despised things—and the things that are not—to nullify the things that are,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2 Cor 12:9 the Lord said to Paul,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of my weaknesses, so that the power of Christ may rest upon me.’

은혜: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도 은혜이며, 끝도 은혜이다, 우리가 침상에 누워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누린 이 은혜에 있다, 우리가 과거에 행한 어떤 공로나 일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지속하며, 은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놀라운 이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전 1:28~29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12: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